

지방 소멸 대응 공영개발... 풍력·태양광 에너지 사업 속도



전남개발공사가 올해로 설립 20년째를 맞으면서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20년'이라는 모토를 내놔다. 공영개발 전문기관으로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전남도 및 22개 시·군과 협력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주민밀착형·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방공기업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발 이익도 지역 발전 기여에 사용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중심 경영도 약속했다. 정부부처의 정책 과제 참여, 소규모 택지 개발 등을 통해 수익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면서, 귀농·귀촌 인의 수요 맞춤형 주택과 마을 정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의 강점인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모두 1위=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90.97점)와 고객만족도(91.3점)에서 전국 1등을 차지했다. 높은 성과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 8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해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전남도의 재생에너지 사업 선도, 전남 각지의 택지 조성 등을 통해 도내 균형 발전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42억 원이었던 순이익은 2019년 337억 원, 2020년 559억 원, 2021년 391억 원, 2022년(추정) 304억 원으로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남약신도시, 빛가람혁신도시 등의 택지 조성으로 이익을 보았던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사는 오동지구 2단계, 여수 죽림1지구, 담양 보춘지구, 광양 덕례도월지구 등에 이어 22개 시·군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공사와 지자체 상호도움이 되는 개발 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기반과 실력은 충분히 갖췄다. 올해만 제4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수상, 제11회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례 장려상, 지방계약 우수사례 장려상,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 사회 복지증진 기여 표창장,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 평가 최우수등급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부처와 전라도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역량을 갖췄다. 부채

보지도 앞으로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청년과 농어촌을 위한 프로젝트 전면에 나선다=공사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농·어촌을 살려라'라는 새로운 미션을 수행한다. 전남은 청년 인구 유출,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에 있으며, 공사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도민의 주거 안정과 전남 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소규모 산업단지 및 배후 주거단지를 조기에 사업화해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한전공대 클러스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특화 산업단지를 발굴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남에 기여하기로 했다. 전남의 취약한 주거 문제 해결과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전남도와 22개 시·군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농촌 내 폐교(빈집, 축사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무안 폐정미소를 활용해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임대 주택 8세대를 제공하는 것을 그 시작으로 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전남도와 상의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결산 순이익 10% 기부"=설립 20년을 맞은 공사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즉 친환경, 사

지난해 경영평가·고객만족도 전국 1위...8년 연속 흑자 전남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도...순이익 10% 사회 환원

역시 2018년 5,173억 원(부채비율 94%)에 달했으나 2021년 말에는 3,697억 원(53%)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이는 등 신규 사업을 할 여력도 충분하다.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도=공사는 전국에서 가장 풍족한 풍력, 태양광 등 전남지역 재생에너지 자원을 사업으로 키워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다. 현재 영암(3MW)·장흥(3MW)·구례(0.5MW) 등에 지역상생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약 45억 원의 발전 수입을 얻었으며, 영광 약수 해상풍력(4.3MW)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광 안파, 완도 장보고, 신안 등의 해상풍력사업 참여도 검토 중이다. 다만 해상풍력사업이 법적, 제도적, 사업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상당한데다 민간 발전사 난립으로 주민과의 갈등·마찰, 사업지구 중복, 인허가 협의의 난항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공공기관 자격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민들이 해상풍력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고교 역할에 나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 사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공사 내 에너지사업자를 본부로 확대 개편해 향후 에너지공사 출범 전까지 에너지 자산 확충과 사업 실행력을 갖추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주변 생산조립단지 조성, 전용 부두 건설, 관광산업 등과 연계해 1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전남 미래 산업으로 우뚝 설 것이라는 것이 공사의 전망이다. 해상풍력 전용 산업단지 후

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투명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2023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우선 도내 업체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역업체 현장 확인제'를 시행, 무늬만 지역업체가 아닌 실제 도내에서 영업여부 현장 확인해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장흥·강진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단 분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회적가치 계약제도를 다듬어 1억 원 이상 물품 발주 대상에도 기부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공헌활동 계획도 재정비해 '도민이 든든하고',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부금은 청년을 위한 청년동반기금, 유아·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희망동반기금으로 나눠 공사 결산 순이익의 10%를 기부하기로 했다. 2023년 기부 예정액은 36억 원에 달한다. 공사의 재능기부로 노후화된 공공시설과 소외계층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재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필요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내부의 관행을 타파하고 변화와 혁신에 나설 예정"이라며 "공사의 전 분야를 돌아보며 비효율적인 요소를 과감히 버리고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높여나가 전남도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올해로 설립 20년째를 맞는 전남개발공사가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20년'이라는 모토 아래 공영개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로 했다. 사진은 무안 오동지구 현장 시찰에 나선 장충모(가운데) 신임 사장.



김영록(가운데) 전남지사와 함께 나주의 에너지국가산단 현장 시찰에 나선 장충모(오른쪽) 전남개발공사 사장.

당장의 성과 재촉보다 바르게 멀리 보고 '값진 씨앗' 찾아 미래 사업 발굴 하겠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33년을 근무하면서 사업계획, 기획조정, 경영혁신, 기획재무 등을 책임졌고, 부사장을 거쳐 지난 2022년 11월 1일 취임한 자타공인 공영개발 전문가다. 구례가 고향으로 순천고를 거쳐 건국대를 졸업한 뒤 1989년 LH에 입사했다. 요직을 두루 거쳐 LH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그가 고향 전남의 최대 공기업 전남개발공사의 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남도를 비롯해 22개 시·군의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출산율 저하,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이들 지자체는 고도의 전략과 섬세한 접근을 통해 지역의 성장 기반을 다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는 공영개발에 목이 말라 있었다. 이 때 나타난 장 사장에게 시·군 곳곳에서 지원·협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은 불가피하며, 그렇다고 수익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개발에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70여 일 동안 현장을 돌며 숙고한 그의 첫 해법은 '수요 맞춤'이다. 지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책을 세워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게도 지역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주문했다. 두 번째 그의 해법은 '값진 씨앗'을 찾아 미래 기반이 될 사

업으로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전남의 자원 가운데 가능성 있는 것을 골라내 3년의 재임기간 동안 충실히 밑바닥을 다져 이후 10년 이상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해상풍력사업이 대표적이다. 당장의 성과를 재촉하기보다 바르게 멀리 보겠다는 의미다. 세 번째로 수익성과 공공성의 '절묘한 조화'를 강조했다. 개별 사업에 매몰되는 단순한 접근법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보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공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택지지구에서 수익을 내고 시·군과 협력해 필요한 공공주택, 산업단지에 투자해 지역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생각이 다. 전남도가 꾸준히 요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으로 반영시킨 남해안 대상 'K-관광 휴양벨트' 조성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등 공사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다음은 일문 일답.

- 취임한 지 70여 일이 지났다.
▲고교리, 고물가, 고환율 등 소위 '3G 현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 인구 소멸, 기반시설 미흡 등 전남도의 현안 문제에 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 현장을 살피며 여러 의견도 들었다. 공사의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20년'을 모토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과 미래 기반이 될 방안들을 마련해 공영개발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공영개발 전문가로서 전남을 평가한다면.

▲아직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만 보면 전남은 '기회의 땅'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개발이 덜 되고,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어 거의 백지 상태인 곳이 상당하다. 난개발을 막으면서 발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굵직한 정부 정책 과제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전남이 세계로 뽐내지고, 청년들이 돌아오고 우수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 하는 전남이 되도록 만들어보겠다.

- 전남 최대 공기업은 어떻게 이끌 것인가.

▲처음 직원들에게 강조한 것은 넓은 시각에서 눈을 크게 뜨고 보자는 것이었다. 하나의 개발 사업에 매몰돼 그 사업만 바라보지 말자는 의미다. 일단 거꾸로 일을 해보라고 했다. 전남이라는 곳이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다. 인구, 도시계획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내 해법을 제시해주는 공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직원들에게도 지역에 대해 공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 가려



은 곳을 끌어주는 지방공기업이 되고 싶다.

- 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이라고 해서 공공성만 강조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가져 공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공사가 전남도의 정책을 뒤따라가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나서 사업들을 구상하고 전남도, 22개 시·군과 협력을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 근교와 5개 시의 택지조성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17개 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청년·노인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공급 위주가 아닌 수요를 감안해 적정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안 폐정미소와 주변 지역을 정비해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올 연말이 되면 공사의 구체적인 사업안들이 나올 것이다.

- 그동안 여러 현장을 다녀왔다.

▲공사가 개발했거나 하고 있는 현장을 다 둘러봤다. 그리고 두 가지 생각을 했다. 먼저 영광 풍력 단지를 보면서 해상풍력사업이 전남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생겼다. RE100 제품(생산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사용)을 생산하기 위해 세계적인 국내외 기업들이 최적의 입지를 가진 전남으로 오고 싶어 것이다. 두 번째 여수·광양 등 동부권과 목포·나주·무안 등의 산업단지가 전남의 미래를 이끌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앞으로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겠다. 임기 3년 동안 성과를 내기보다 장기간 공사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씨앗'을 발굴해 뿌리고 기반을 닦겠다. 최근 시·군에서 공사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속에 관광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고, 청년 귀농귀어귀촌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공사와 전남도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개발이 역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데도 앞장설 계획이다. 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이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데 공헌하는 따뜻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